

이야기 5 : 바벨탑

주제말씀
[창세기 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노아의 홍수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세상에는 노아의 자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다 같이 함께 살면서 같은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살다가 시날 땅의 어느 들판에 모여 살게 되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서 마음도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에게 지혜가 생길수록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도 커져갔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욕심이 생긴 사람들은 아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쭌보지도 않고 크고 높은 탑을 쌓았어요.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쌓는 탑을 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서로 다르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해는 점점 커졌고 큰 소동이 일어나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어요.

하늘까지 닿으려고 탑을 쌓았던 것도 그만 두고 각자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높고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쌓던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활동 1.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창세기 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활동 2.

각각의 벽돌을 올려 같은 뜻을 가진 언어(단어)에 붙여주세요.

Bonjour

สวัสดีครับ

Hello

Ciao

你好

Hola

مرحبًا.

Salve

안녕

こんにちは

Hello

你好

안녕

สวัสดีครับ

Salve

Hola

Ciao

こんにちは

Bonjour

مرحبًا.

